



## 토쿄해상, 일본에서 처음으로 인도 생·손보업 동시 진출

이상우 선임연구원

- 최근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의 아시아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, 토쿄해상이 인도의 유력 금융 회사인 Edelweiss Capital(이하 ECL사)과 생명보험회사 공동설립을 통해 인도시장에 진출함.
  - 토쿄해상은 인도 보험감독당국으로부터 신설회사인 Edelweiss Tokio Life Insurance(이하 ETL)의 생명보험업 및 보험상품 인가를 지난 5월 10일과 6월 10일에 각각 취득하였으며, 7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할 예정임.
  - 토쿄해상은 2000년 이후 미국 및 유럽의 대형 대리점 또는 브로커 회사를 인수하고 아시아 보험시장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으며, 지난 2000년에는 인도의 손해보험시장에도 진출한 바 있음.
  - 이로써 토쿄해상은 일본 보험회사로서는 처음으로 인도 생·손보시장 모두에 진출하게 됨.
  
- 인도의 외국계 보험회사 지분한도 규제에 따라 토쿄해상이 ETL사의 자본금 55억 루피(약 1,330억 원)에 대해 26%(최대한도)의 지분을 소유하고, 나머지 74%에 대해서는 ECL사가 투자함.
  - 인도 붐바이시에 본점을 두고 영업 초기에는 주로 개인대리점을 통해 저축성상품을 판매하고, 이후 단계적으로 보장성상품과 방카슈랑스 등을 활용해 상품과 판매망을 확충할 계획임.
  - 인도 생명보험시장 규모는 약 5조엔(2010년 3월 말 현재, 수보 기준)으로 연평균(2006~2010년, 수보 기준) 26% 성장하고 있으며, 총 23개의 인가된 생명보험회사가 영업 중에 있음.
  
- 토쿄해상은 이미 지난 2000년 인도의 농업관련 공사와 공동투자 방식으로 손해보험회사를 설립함에 따라 일본의 보험회사로는 처음으로 인도의 보험시장에 진출한 바 있음.
  - 지난 5월에는 미즈이스미토모해상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의 생·손보시장에 동시 진출하는 등 일본 손해보험회사의 해외시장 진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.

(일본경제신문 6/13, INDONEWS 6/15, 토쿄해상보도자료 6/14 종합)